

제1절 고분

1. 삼국 및 통일신라 시대

1) 덕신리 고분군⁶⁶⁹

경상북도 울진군 매화면 덕신리 475-4 일대로 덕신리 후리동 뒷산의 북서쪽 능선상에 위치한 고분군이다. 2002년 발굴조사 되어 수혈식석실묘 75기, 부곽으로 보이는 작은 소형 석곽묘 11기와 옹관묘 1기 등 고분 83기가 확인되었다.

석곽은 대부분 능선 사면이나 계곡부에 분포하며, 장축은 등고선과 평행하다. 봉분은 36호 석곽을 제외하고 확인되지 않으나, 유구간의 중복이나 선행유구를 파괴하고 조성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 훼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석곽의 축조방법은 장방형의 묘광을 판 다음 벽석을 쌓고 시상석을 깔았다. 벽석은 30~50cm 내외의 산돌로 3~5단 정도 쌓았으며, 36호는 8~9단으로 쌓았다. 석곽의 규모는 길이 250cm 내외의 소형이 대부분이며, 평면 형태는 대부분 세장방형으로 한쪽 단벽이 둥글게 돌아가는 것이 41기로 다수를 차지한다. 호석을 갖춘 것은 80호 석곽 1기뿐이다. 시신의 두향은 북서쪽인 것도 있으나 대부분 남동쪽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토기류 800점·철기류 46점·금동류 17점·기타 54점으로 모두 923점이 출토되었는데, 토기류가 대부분이다. 금동류는 모두 이식이고, 철기류는 무구류와 농구류가 함께 출토되었다. 특히 16호 수혈식 석곽묘에서 상원하방(上圓下方)의 철제 환두대도 1점과 48호 수혈식 석곽묘에서 철제 대도 1점이 출토되었다. 또 51호 수혈식 석곽묘에서 의성양식의 유개고배 4점이 출토되었는데, 이것은 의성 탑리 봉토매납 부장품과 비슷하다.



<그림 127> 울진 덕신리 고분군



<그림 128> 울진 덕신리 고분군 출토유물

669. 안동대학교박물관·부산지방국토관리청, 2004, 『울진 덕신리 유적』

덕신리 고분군은 울진지역에서 처음 발굴된 삼국시대 고분군이며, 가장 많은 유구와 유물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출토유물은 모두 신라양식으로 당시 울진지역이 신라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고고자료로서 동해안 지역의 신라진출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축조시기는 5~6세기로 추정된다.

울진군 매화면 덕신리에 위치하는 덕신리 고분군은 울진 지역 내에서 그 존재가 확인된 9곳의 고분 관련 유적 가운데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유적의 성격이 비교적 상세히 파악된 최초의 고분 유적이다. 2002년 6월부터 약 6개월간 안동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통해 유구의 구조와 유물의 형식 및 조합양상이 대체로 양호하게 밝혀졌으며 이를 통해 본 고분군이 AD 5C 중반부터 6C 초반까지 조영되었던 지역 내 재지세력의 집단 매장공간임을 유추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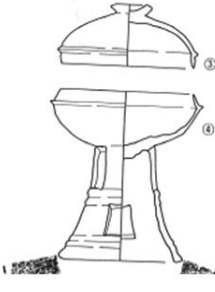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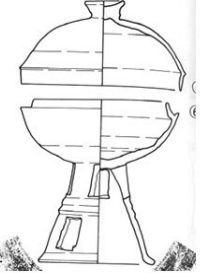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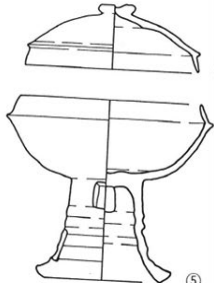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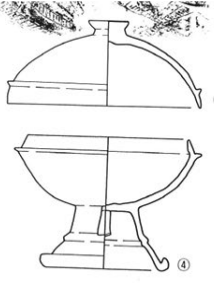
고분군은 해발 최고 32m에서 최저 8m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야트막한 구릉상에 조성되었으며 확인된 유구의 대다수가 능선과 평행을 이루면서 북서·남동을 주축으로 길게 줄지어 입지하고 있다. 확인된 유구는 모두가 수혈식석곽묘로 총 83기가 확인되었으며 유구의 입지분포에 따라 크게 능선 정상부 사면에 6기 경사면에 23기 그리고 말단부에 해당되는 계곡 부에 54기가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석곽의 원형과 유물의 부장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것은 40기 정도이다.

석곽은 대체로 장방형계의 중·소형 석곽이 주류를 이루지만 길이가 3m 이상이 되는 대형석곽도 확인된다. 특히 양단벽 가운데 한쪽이 호(弧)형을 이루는 석곽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서성훈은 그의 논고에서 이러한 석곽의 규모와 평면형태 및 축조방식등을 기준으로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된 40기의 석곽에 대한 형식분류를 시도하였고 이를 통해 네 가지의 분류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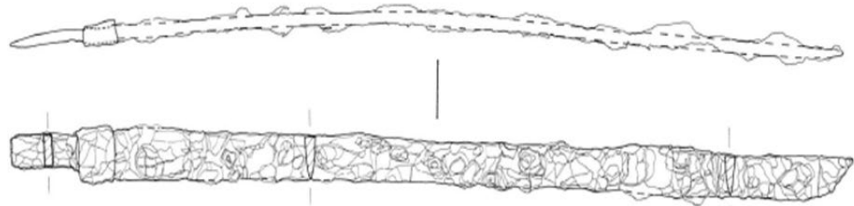
덕신리 고분군에서 확인된 유물은 총 923점으로 그 중 토기류가 800점으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며 이외에 철기류 및 금동류 그리고 기타 유물이 나머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안동대 박물관에서 발간된 덕신리 유적 보고서나 본 고분군을 대상으로 한 서성훈의 논고⁶⁷⁰에서는 토기 가운데에서도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고 있는 고배류를 대상으로 덕신리 고분군의 전체적인 편년을 상정하고 있는데 특히 서성훈은 고배류를 개(蓋)의 유무 및 투창과 대각단의 형태등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3단계로 세분화하였고 이에 장경호류의 형식분류안을 첨가하여 각 단계에 따른 시기설정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서성훈의 논고를 토대로 한다면 덕신리 고분군의 편년은 크게 네 시기로 구분된다. 먼저 1·2시기는 AD 5C 2/4분기에서 5C 3/4분기로 설정되며 3·4시기는 5C 4/4분기에서 6C 1/4분기로 설정된다.

670. 서성훈, 2004, 『울진 덕신리고분군의 역사적 성격』, 안동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표 1〉 울진 덕신리 고분군 유물 분류표

1시기	2시기	3시기	4시기
AD 5C 2/4 ~ 5C 3/4 분기		AD 5C 4/4 ~ 6C 1/4 분기	
			
석곽 15호	석곽 43호	석곽 6호	석곽 1호

<그림 129> 울진 덕신리 고분군 유물 분류표

석곽 16호	
석곽 48호	

<그림 130> 울진 덕신리 고분군 유물 분류표

덕신리 고분군 내에서는 압도적인 수량을 차지하는 토기류 외에도 피장자의 신분을 가늠해볼 수 있는 유물이 확인되는데 금동이식과 대도가 그것이다. 신라의 중앙세력인 경주출토 유물과 비교한다면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다소 떨어질지 모르겠으나 금공품 및 무구류 같은 위세품을 패용했던 수여나 지위체계를 감안한다면 유물이 출토된 해당 유구의 피장자 신분은 재지세력 내에서도 단연 상위를 점할 것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

덕신리 고분군은 유구의 구조와 유물의 형식분류를 통해 조성 시기를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고 그 전체적인 시기는 AD 5C 중반에서 6C 초반으로 설정해볼 수 있다. 유구는 전체적으로 계곡부에서 먼저 축조되기 시작하여 경사면을 거쳐 정상부 사면으로 이동하면서 축조되었고 이와 궤를 같이하여 점차 유구의 규모도 대형화되었다.

2) 덕천리 고분군(Ⅰ)⁶⁷¹

경상북도 울진군 덕천리 일원의 신울진원전건설부지 내 I 구역 1지점 유적인 덕천리 신라묘군 I 은 지표조사에서 고분군으로 확인되어 발굴조사를 실시한 지역이다.

조사지역에서는 석곽묘 31기(배장묘 5기 포함), 석실묘 56기, 토광묘 28기(배장묘 1기 포함), 옹관묘 2기, 수혈 2기, 애장묘 1기, 수혈주거지 1기로 총 121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특히 석실묘는 울진지역에서는 최초로 조사된 것으로 6~7세기대 울진지역의 고분 문화를 밝히는데 획기적 자료로 판단된다. 석곽묘는 대부분 중·소형으로 평면형태는 장방형을 띠며, 장축방향은 남·북 방향과 동·서 방향이 모두 확인된다. 울진지역에서 앞서 조사된 덕신리 고분과 비교 가능한 유구로, 5호 석곽묘에서 출토된 소가야계 단각고배는 신라의 사민정책 혹은 물품 교류의 연관성 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림 131> 울진 덕천리 고분군 I 출토유물



<그림 132> 울진 덕천리 고분군 I

횡구식석실묘는 조사지역의 남사면과 구릉 말단부에 집중 분포하며, 장축방향은 대부분 등고선과 직교되는 남북방향으로 축조하였다. 횡구부는 주로 사면을 향하는 남쪽에 위치한다. 평면형태 세장방형의 소위 수혈계 횡구식석실묘에서부터 평면형태 장방형의 전형적인 횡구식석실묘까지 다양하게 확인되었다. 울진 및 동해안지역에 분포한 횡구식석실묘의 변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유구이다.

그리고 횡혈식석실묘는 2기만 확인되어 유적 내에서 차지하는 수적 비중은 높지 않으나 영덕, 울진, 삼척지역을 통틀어 조사된 예가 극히 적은 유구로, 경주지역에서 지배계층의 묘제로 사용되었던 묘제가 울진지역에서 확인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위상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유구로 판단된다. 특히 석실묘 가운데 34호 석실묘와 43호 석

671. (재)성림문화재연구원·한국수력원자력, 2015, 『울진 덕천리 신라묘군 II』

실묘에서는 (금)동관이 출토되었다. 이는 피장자의 신분과 사회적 위치 등을 추정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울진지역의 중요성을 대변해준다.

신울진원전건설부지 내 I 구역 1지점의 덕천리 신라묘군 I 유적은 울진지역과 동해안 일대에 분포하는 신라 고분군의 변화양상과 신라의 동북방 진출경로 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인근에 위치한 울진 봉평신라비의 건립 연대와 유사한 시기의 유물이 출토됨에 따라, 신라의 지방 지배 방식 연구 등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133> 울진 덕천리 고분군 I 출토유물

3) 덕천리 고분군(II)⁶⁷²

조사구역은 울진원자력본부에서 시행하는 신울진원전건설 예정부지로서, 사업시행 전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지역 내 8개 지점에서 삼국시대로 추정되는 고분군 2개소(지표조사 1·4지점), 유물 산포지 5개소(지표조사 2·3·5·7·8지점), 해안사구 1개소(지표조사 6지점)가 확인되었다. 덕천리 신라묘군 I (I 구역 1지점)의 남동쪽에 위치한다.

유구는 삼국~통일신라시대 분묘 177기(목곽묘 5기, 봉토분 4기 포함), 수혈 13기가 조사되었으며, 조선시대 이후 수혈주거지 6기, 건물지 부속시설 2기, 수혈 15기, 토광묘 8기가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 분묘 8기와 조선시대 이후 토광묘 4기, 건물지 부속시설 1기는 덕천리 신라묘군 I 에 해당하는 1구역 1지점의 능선 말단부에 위치한다.

삼국~통일신라시대 분묘는 177기가 조사되었으며, 이 중 잔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명확하게 석곽묘로 판단되는 유구는 48기이다. 석실묘로 추정되는 72기 중 유구의 평면형태, 추가장의 여부 등을 통해 확인하였을 때 34기가 횡구식석실묘로 판단되며, 횡혈식석실묘로 추정되는 유구는 5기가 조사되었으나 한쪽 단벽이 유실되거나 상부가 대부분 삭평되고 연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하지는 않다.

672. (재)성림문화재연구원·한국수력원자력, 2012, 『울진 덕천리 신라묘군 II』



<그림 134> 울진 덕천리 고분군 II



<그림 135> 울진 덕천리 고분군 II 출토유물

덕천리 신라묘군II에서 조사된 석곽 및 석실묘의 가장 큰 특징은 유구분포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매장주체부 대부분 주구가 조성되었다는 점과 주구를 둘러싸고 있는 주구간의 중복이 매우 심하게 이루어진 점이다. 연속된 주구는 일정한 묘역이 조성된 이후 후축되는 분묘들이 선축된 분묘들의 주구의 일부분을 파괴 또는 연접·중복하여 조성됨으로써 생긴 현상으로 추정되며, 토층 조사 결과 주구간의 중복은 2가지의 양상으로 추정된다. 첫 번째는 선축된 분묘의 주구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 주구 내부에 퇴적토가 퇴적된 후 후축된 분묘가 선행된 주구 일부분을 파괴하고 조성되었을 가능성과 두 번째는 주구 중복에 의한 토층조사에서 단일토층으로 나타날 경우 선축된 분묘의 주구에 퇴적토가 퇴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 후축된 분묘가 새로운 주구를 연접·조성하여 재사용한 경우로 추정된다. 이러한 주구는 조사구역의 토양이 사질성분이 강해 집중호우 시 배수를 용이하게 해 봉토의 보호 역할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덕천리 신라묘군II 발굴조사에서 삼국~통일신라시대 분묘는 7단계로 구분된다. 5세기 전반 처음으로 목곽묘가 축조되기 시작해 석곽묘를 거쳐 석실묘로 변화된다. 석실묘는 증축한 것에서부터 평면형태가 초세장방형과 세장방형 및 장방형 등 다양하게 확인되고,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에는 횡혈식석실묘로 변화되고 있어 울진지역에서 석실묘의 도입과 발전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V 단계에 해당하는 유구는 1구역 1지점 추가부지 3호 묘 1기뿐이며, 덕천리 신라묘군II에서 이 단계에 유구는 극소수만 확인되었다. I 구역 1지점 추가지점 분묘는 대부분 VI단계에 해당한다. 또 덕천리 신라묘군 후기가 되면 분묘는 등고선과 직교하는 남·북 방향으로 변화되며, 유물은 박장으로 부장된다. 출토 유물에 있어서도 고배류가 줄어들고 옹과 호류가 증가하며, 기대 등 제사유물은 확인되지 않는 등 유물 종류가 간소화 된다. 종합하면 조사구역 중앙부에 목곽묘가 처음으로 축조되기 시작해 조사구역 북쪽과 남쪽으로 확장되며 석곽묘, 횡구식석실묘(증축묘), 횡혈식석실묘로의 변화양상을 보인다. 특이한 점은 7세기 전반에 분묘가 축조되지 않아 일정기간 동안 단절되나 유물이 출토되지 않은 분묘도 다수 확인되어 단정할 수는 없다.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5호 수혈에서는 파쇄된 대호 내부에서 동물 문양의 상형용기 2점과 4점의 기대가 출토되었다. 출토된 유물의 시기로 판단할 때 인접한 56호·56-1호 석곽묘 또는 62호 석실묘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수혈의 동쪽이 공지로 비어 있어 덕천리 신라묘군 전체에 대한 제사시설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삼국~통일신라시대 유구에서 출토된 유물은 지표 수습유물을 제외하고 1326건 2127점이 출토되었다. 토기류는 고배와 개의 빈도수가 가장 높았으며, 금속 유물은 무기류 41.1%, 농공구류 31.1%, 마구류 4.7%, 기타 23.1%로 확인되었는데 무기류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철촉이 다량으로 부장되었기 때문이다. 기타 금속류에는 금구와 교구, 철환, 불명철기 등이 포함된다. II-99호 묘에서는 환두대도와 함께 금동관이 출토되었다. 금동관은 덕천리 신라묘군 I 38호와 56호 석실묘에서 이미 출토된 바 있으며, 이는 당시 울진 지역의 정치체를 엿볼 수 있는 유물로 판단된다.

조사된 덕천리 신라묘군 II 발굴조사에서 울진지역과 동해안 일대에 분포하는 신라 고분군의 변화양상과 신라의 동북방 진출 경로 등을 엿볼 수 있었다. 인근에 위치하는 울진 봉평신라비와 4km 가량 떨어져 위치하며, 신라의 동해안 경영과 관련하여 울진이 점한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중심 고분군 가운데 하나가 울진 덕천리 신라묘군이며, 발굴 자료가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조사의 의의가 매우 높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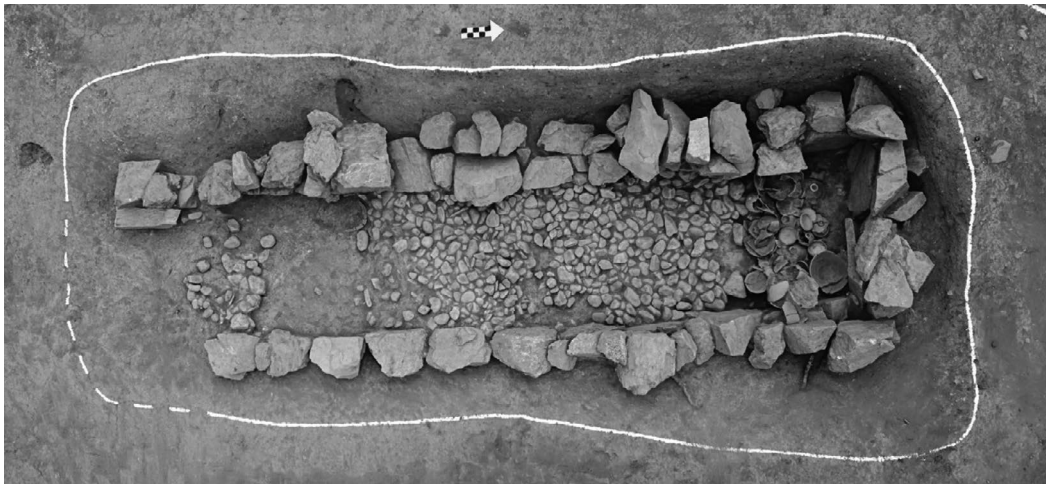
<그림 136> 울진 덕천리 고분군 II 출토유물

4) 읍남리 고분군⁶⁷³

유적은 울진 읍남리고분군의 일부로서 동쪽으로 뻗어 내린 능선 말단부에 위치한다. 울진 읍남리 공동주택 신축공사부지 내 문화재 발굴조사는 총 면적 5,500㎡이다. 유적 범위 중 동남사면 일부 지역은 민가와 인접한 지역으로 삭평이 심하다. 삼국시대 석실·석곽묘가 중심이 되는 분묘유적으로 일부 삭평되고 교란되었으나 하단시설과 내부 출토유물이 비교적 양호하게 남아있다. 조사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1기와 삼국시대 석곽묘 26기, 횡구식석실묘 14기, 옹관묘 1기, 의례유구 5기, 수혈 6기, 구 2기와 조선시대 토광묘 2기가 확인되었다. 출

673. (재)영남문화재연구원, 2018, 『울진 읍남리 고분군』

토유물은 삼국시대 석곽묘와 석실묘에서 유개고배, 유개대부완, 유개단경호, 유개대부장경호, 태환이식, 장식도 환두부, 살포, 철촉, 철부 등 총 835건 863점이 출토되었다.



<그림 137> 울진 읍남리 고분군



<그림 138> 울진 읍남리 고분군 출토유물

조사지역에서 중심이 되는 석곽묘와 석실묘는 구릉 능선을 따라 조영되었다. 대부분 삭평·도굴되어 그 형태가 온전하지 않지만 장방형과 세장방형이 주류를 이루며, 방형계 플랜의 횡혈식 석실묘는 확인되지 않았다. 출토유물로 볼 때 동일집단이 일정 기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고분군의 조영 시기는 5세기 중후엽에서 7세기 전엽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물 구성은 토기류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무기류, 장신구류, 농구류와 마구류가 뒤를 잇는다. 토기류는 유개고배, 개, 고배, 유개대부완, 대부완, 파배, 연질발, (유개)대부장경호, (유개)직구호, 단경호, 시루 등이 확인된다. 이 중 출토 수량이 가장 많은 기종은 배로 대

부분 두상의 부장공간에 2~3점이 겹쳐진 상태로 출토되고 있다. 그리고 개와 고배는 뒤집히거나 넘어진 상태로 다수가 출토되었다. 고배와 개는 분묘 별로 수량이 거의 동일하여 매납 당시에는 유개고배 세트로 부장된 것으로 판단된다. 개, 고배, 대부장경호의 속성과 신라지역에서 주로 확인되는 삼엽문환두대도 등의 연구자료를 이용해 대략적인 시기를 유추해 보면 조사지역 내의 분묘의 중심연대는 5세기 중·후엽에서 6세기 중엽으로 볼 수 있다. 석실묘 중 추가장이 된 고분을 통해 시기를 유추해 보면 5세기 후엽에서 7세기 후엽까지 분묘의 추가장이 진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의성양식의 토기류가 많은 수는 아니지만 확인된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이런 점과 덕천리 고분군에서 확인된 모자곡옥 등으로 볼 때 육로를 이용한 지역적인 교류와 함께 해상을 이용한 교류도 감안하여야 한다.



<그림 139> 울진 읍남리 고분군 출토유물

삼국시대 울진지역은 지정학적으로 해안으로는 울릉도와 직선거리 가장 가까운 지역이고 내륙으로 보면 경주에서 강릉으로 올라가는 해안선과 내륙방향으로 영주와 안동으로 올라가는 교통의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울진지역의 대단위 고분군인 덕천리 고분군과 좋은 비교자료⁶⁷⁴가 될 수 있다. 두 고분군의 비교를 통해 당대의 울진지역 정치체의 모습을 밝히는 데 좋은 자료이다.

674. (재)성림문화재연구원·한국수력원자력, 2012, 『울진 덕천리 신라묘군 II』

2. 고려 및 조선시대

1) 덕천리 고려 및 조선묘군⁶⁷⁵

울진 덕천리 고려·조선분묘군 유적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울진원자력본부에서 시행하는 신울진원전건설예정부지로서 선행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8개발굴(시굴)조사 대사가구역 가운데 V구역 8지점에 해당되는 곳이다.

유적은 풍수지리적으로 배산임수의 전형적인 지형에 입지해있었으며, 유구 대부분은 구릉 능선부의 평탄면을 따라 집중적으로 조성되었다. 본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확인된 유구로는 고려시대 토광묘 7기, 조선시대 토광묘 3기, 시대불명 토광묘 10기가 조사되었다.

조사된 토광묘는 모두 황갈색풍화암반층을 다소 깊게 굴착하여 조성되었으며, 조선시대 11호 토광묘의 경우 최대 215cm까지 굴착하였다. 묘광의 장축방향은 대체로 북서쪽을 향하지만, 고려시대 토광묘의 장축방향은 자북에 가까우며, 조선시대 토광묘는 구릉의 정상부 방향인 북서향에 근접하고 있다. 따라서 각 시대별 매장관습의 차이에 따라 피장자의 두향이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40> 울진 덕천리 고려묘군 출토유물



<그림 141> 울진 덕천리 고려묘군 출토유물

묘제방식은 고려·조선시대 대다수 목관을 사용하지 않고 피장자를 그대로 안치한 직장묘이지만, 고려시대 20호 토광묘는 석개형 토광묘, 조선시대 2호 토광묘는 목관을 사용한 목관묘이며, 목관과 묘광의 사이에 회를 혼합하여 충전함으로써 회곽묘적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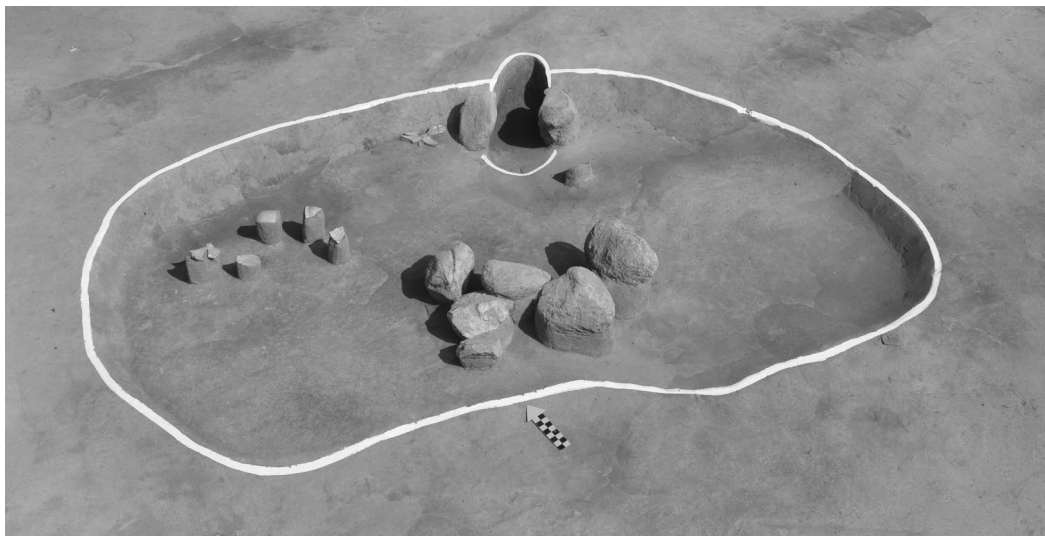
출토 유물을 고려시대의 경우 청자대접과 청자완, 청자병, 도기병, 청동대부완, 청동완, 청동술가락 및 젓가락, 철편 등이 출토되었으며, 조선시대는 분청자접시, 분청자발, 분청자병, 백자종지, 백자병, 청동합, 청동인장, 철제 가위, 유리제 경식, 백납제 구슬, 벼루 등 총

675. (재)성림문화재연구원·한국수력원자력, 2012, 『울진 덕천리 고려·조선시대 분묘군』

45건 74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출토유물의 종류와 기형, 부장양상, 표면기법 등을 종합해 볼 때 고려시대 토광묘의 조성연대는 상한~13세기 후반, 하한~14세기 후반으로 편년할 수 있으며, 조선시대 토광묘는 16세기 전·후한 시점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울진 덕천리 고려·조선시대 분묘군 유적에서 발굴조사 된 20기의 토광묘와 45건 74점의 출토유물에 대한 조사보고 및 유구와 유물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보고서를 통해 보고된 유구와 유물은 고려 및 조선시대 분묘에 대한 발굴조사가 빈약한 울진 지역에서 비록 소규모로 행해진 발굴조사이지만, 향후 울진 지역의 고려·조선시대 토광묘의 증가된 자료와 함께 당시 고려·조선시대 분묘연구 및 사회·문화상을 복원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서 이와 관련된 학술적 연구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한다.

제2절 기타 유적



<그림 142> 울진 덕천리 유적